



I 금주의 성화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 엘리야가 광야에서 주님께 죽기를 청하고 잠들자, 천사가 그를 깨우며 “일어나 먹어라.”(1열왕 19,5) 하였다. 엘리야가 깨어 보니 머리맡에 빵과 물병이 있었다. 피노글리오의 이 작품은 극적이고 생동하는 인물 표현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이 그림에 묘사된 엘리야는 정열에 넘치는 불굴의 초인이 아니라 피로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갈 길이 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양식은 바로 천상의 빵, 예수님이시다.

파올로 도메니코 피노글리오,
캔버스에 유화, 1615년 경,
개인 소장.

† 오늘의 전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요한 6,41-51 참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지식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배우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현명해도, 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힘으로 삽니다.

제1독서 1열왕 19,4-8 제2독서 에페 4,30-5,2 복음 요한 6,41-51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화는 맛보고 깨달아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8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미사 중에는 휴대폰을 끄시다

영성체 : 내가 또 다른 예수님이 되는 신비



김종호 요셉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환자 봉성체 중에 늘 읽는 복음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며, 한 할머니께 병자성사를 드리면서 성체성사의 은총을 체험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영성체를 하고 나서는 어느 새 눈에 눈물이 고이며 눈이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은 어느 새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얼굴로 변하고,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이 험뎠던 숨결이 조용히 안정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제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늘 봉성체를 하면서도, 어느새 그분의 현존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성체를 영해 주는 저를 회개시키시기 위한 양 이렇게 환해지는 환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새삼 저를 반성하게 되고, 소름끼치는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성당을 성당 즉 거룩한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성체의 형상으로 계신 예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성체를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현존해 계시는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의 몸 자체가 예수님을 모신 거

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당에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듯,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이 편안히 쉬고 위안을 느낄 수 있는 세상 안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존하시지 않는 성전은 허물어야 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이유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실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역시 다른 이에게 먹히는 또 다른 빵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 즉 사랑 그 자체를 다른 이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낳아주신 성모님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에게 이 예수님을 낳아주는 또 다른 성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 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진정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2024**

주일마다 거듭나는 나의 영혼 주님, 모든 것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방자 (엘리사벳)

나는 가끔 입교한지 얼마 안 되는 자매님들께 주님을 알고 난 뒤의 심정을 물어보곤 한다. 그들의 대답은 모두 비슷하다. “정말 좋아요.” “마음이 평온해요.” “주님을 몰랐더라면 전 아마 나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느님... 그분은 대체 누구시기에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와 감동을 주시는 것일까? 아니 그분의 가슴은 얼마나 넓기에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안아 들이고 또 더 안을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일까? 입교한 그분들의 모습에서 내 지난날의 신앙을 떠 올려 본다.

그 시절 나는 하느님을 나의 수호신, 무조건 나를 지켜주시고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분이랴 생각했다. 걸핏하면 그분의 도움을 청하며 주님, 주님 하고 매달렸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보채는 철부지 어린애 같았다고 할까... 그러나 하느님께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지는 않았다. 되는 일 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였다. 칠순의 나이가 되어 이제야 느낀 것은, 하느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그분 역시 그냥 놓아두시고,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뜻을 묻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기도 역시 조금씩 바뀌어

간다. “주님 해 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너무 많은 것을 채워 받고도 부족함이라 여긴 내 자신이 이제야 몹시 부끄럽다.

우리는 주일마다 미사 전례에 참석한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대를 보고 고개 숙여 깊은 절을 하며,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하고 경건한 자세로 참회한다. 성전의 ‘제대’는 히브리어로 ‘미즈 베아흐’라고 하며 이는 용서, 순결, 축복, 생명의 네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넷 중 첫 번째가 ‘용서’다. 그분의 뜻은 얼마나 심오하며 그분의 가슴은 얼마나 포근한가. 신자로서 미사전례 중에 성체를 모시면서 참회와 감사로 눈물을 흘려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성가를 부르다가 울컥 목이 메어 노래를 못다 부르고 숨을 죽일 때... 강론을 듣다가 그 내용이 참으로 나에게 대한 말씀만 같아 핑그르 눈물이 돌 때... 그 순간 아마 우리는 더 없이 순결한 영혼이 된 것이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미사참례를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나가는 신비의 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설령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와 잡다한 세속의 때를 덕지덕지 묻힐지언정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제대 앞에 꿇어 앉아 내 영혼을 맑힐 수 있음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32**

8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신자라면 신자답게



미사 중에는 휴대폰을 끄시다!

세상에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 많지만 그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하고 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례할 때에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받는 것입니다. 예언자들과 성인들이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주의 임금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무시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실례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리 하는 것은 얼마나 무람한 일이겠습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_ 생명의 빵

지난 주일 복음에 이어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심을 선언하면서 생명의 빵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빵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서는 수난과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바치는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가 22,19)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빵’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나누고 내어주는 삶을 다짐합니다.

말씀과 교리

_ 성체성사 거행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를 생각하고 나누게 됩니다. 성체성사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다른 사람과도 서로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성체성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성체성사는 미사 중에 거행합니다. 이 미사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성체성사를 거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사에 참석한 회중과 함께 계시고, 사제의 인격 안에 계시고, 성경 말씀 안에

계시며, 빵과 포도주 안에 계심을 우리 교회는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체성사 안에 참으로 현존하십니다.

말씀과 성사

_ 성체성사 준비

고해성사 : 중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1코린 11,27-28)

공복재(空腹齋) : 성체에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적어도 영성체하기 전 한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물과 약은 언제든지 들 수 있고, 고령자, 병자,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영성체 회수 : 이미 영성체한 자가 같은 날 다시 영성체하려면 그 미사에 온전히 참석할 때 가능하며, 모든 신자들은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부활대축일에 영성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일과 의무축일 나아가서 매일이라도 성체를 모실 것을 권고합니다. **참고**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안에도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언제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하느님 안에 한 가족!”

교구 문화홍보실

세계적으로 이주민들의 수가 수억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주민 인구도 150여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정당한 일원입니다.”



오래 된 대구의 도심인 종로 인근, 속칭 약전 골목 안에 숨듯이 자리 잡고 있는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1975년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와 독일 가톨릭 원조기구인 <미제레올(Misereor)>의 도움으로 건립된 이래, 근로자회관은 이 지역의 노동자들과 소외된 이들의 피신처가 되어 왔습니다. 1998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영어 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근로자회관은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안식처이자 든든한 후원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맡고 계시는 소박한 함박웃음의 이상해(스테파노) 신부님은 이주민들이 하느님 안에 한 가족이며 ‘함께’ 할 형제자매들이라면서 “이들은 주의하고 관찰해야 할 관리 대상이거나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정당한 일원입니다.”하고 강조합니다.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근로자회관은 근로자 의료문제 등 이주노동자들이 자주 마주치는 어려움을 위한 해결사 노릇을 할 뿐 아니라, 이주민과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부부들을 위한 부부상담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상해 신부님은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주일에는 영어와 베트남어 등 이주민들의 모국어로 미사를 봉헌하고, 아기들을 위한 세례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며 이주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인정으로 대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링크



■ 제3회 대구대교구, 잘츠부르크대교구 청년 교류



제3회 대구대교구, 잘츠부르크대교구 청년 교류 모임이 7월 25일(수)부터 8월 2일(목)까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대교구에서 열렸다. 이번 교류모임은 이도엽(T.아퀴나스), 권대진(다마스) 신부님과 교구 청년대표 38명이 참가하여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 21)”라는 주제 아래 양 교구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 2012년 교구 중등교원사도직협의회 여름연수



2012년 교구 중등교원사도직협의회 여름연수가 “교직, 막중하고도 아름다운 소명”이라는 주제로 7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청통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는 교구 학교복음화담당 이영동(지릴로) 신부님의 지도 아래 교직원 83명이 참석하여 폐제기도, 학교복음화를 위한 강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빛

우리 몸 = 우리 땅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청년성소자캠프

기간: 8.18(토)~19(일)

대상: 30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흥 루피나 수녀, (010)4907-2754

피정

김중수 주교님의 2박3일 말씀피정

기간: 8.27(월)14:00~29(수) (2박3일)

장소: 대전교구 정하상교육회관

회비: 1인 14만 원

문의: (041)863-5690

(010)8848-5690

베네딕도영성관 신약성경 통독피정

기간: 8.29(수) 9:45 ~9.1(토) 17:00

동반: 김 수조 아가다 수녀

회비: 14만 원

문의: 313-3425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기간: 9.15(토) 11:00~16(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5만 원

문의: 꽃동네기도회, (010)5490-5345

myungkkot@hanmail.net

교육 | 모집

모녀 조이플스테이 (10-12차)

기간: 9.1(토)~2(일)

9.22(토)~23(일)

10.6(토)~7(일)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문의: (010)9056-9005

젊은이 거룩한독서모임 Lectio Divina

하반기 첫모임: 9.11(화) 매주 화 19:00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내 싸리울

문의: 툇핑포교베네딕도수녀회

313-3431 / (010)8519-3431

제16차 외식사업 성공전략 심포지엄

일시: 8.21(화) 14:00, 감삼동 강당(무료)

내용: 최강외식점포를 위한 성공전략

대상: 외식식품 경영, 관리, 창업예정

주최: 대가대 보건의료과학대학원

문의: 850-3179

http://www.oesikceo.com

오순절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물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김마리아, (010)5529-3186

대가대 음악원 가을학기 수강생모집

과정: 음악 개인 레슨, 취미

모집: 8.13(월)~, 개강: 9.3(월)~

내용: 피아노, 성가지휘 / 반주법,

성악, 관현악, 작곡, 우쿨렐레,

채즈피아노, 가곡교실 등

문의: 대가대평교원, 660-5556~7

꽃동네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 8.16(목)~28(화)

인원: 사회복지학부 64명

간호학과 14명

문의: (043)270-0100~0102

미사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8월 13일(월) 오전 10시	성건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3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미사	8월 13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8월 18일(토) 오전 10시	월성성당
평화를 위한 프란치스칸 영성미사	8월 18일(토) 오후 3시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한수위! 천년의미소 미술학원
 CHUN NYUN UI MISO ART INSTITUTE
중등부/고등부 입시전문
 언제나 내자녀처럼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명덕점 431-5005 수성점 741-3506
 원장 이 해 목 (도미니코)

서정의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Gong 공피부과
 각종 피부질환, 아토피, 여드름 흉터
 기미 및 레이저 클리닉 운영
T.053-710-0710 피부과 전문의
 개령대 동산의료원 외래교수
팔달신시장 옆 덕인빌딩 5층 원장
 (주차장 완비) **공수득 (가브리엘)**

항점신앙유적지 쉼터

원룸형	4인 수용	1일 40,000원
투룸거실형	8인 수용	1일 80,000원
세자요한의 집	8인 수용	1일 100,000원
로열의 집	16인 수용	1일 200,000원

자연을 접하고 휴식과 영적충전을
 얻을 수 있는 교구운영 쉼터!!
 예약 : cafe.daum.net/jeonhwasoo
 문의 **010-9889-3099**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해아림한의원
 뇌기능검사훈련 / 집중력 / 우울증
 공황장애 / ADHD / 틱 / 키성장
NAVER 해아림한의원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행사 | 모임

노동자 미사

일시: 8.17(금) 19: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강당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1

교육 | 모집

8월 가나강좌

일시: 8.19(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원, 당일접수 (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가톨릭 녹색 환경 학교 1기 모집

일시: 생태 영성 강의
8.22, 8.29, 9.5(수) 19:30
가족과 함께하는 에너지캠프
9.9(일) 10: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신청마감: 8.14(화), 회비: 2만 원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1
(010)3077-8571

제4기 로고스 스피치 학교

기간: 9.1(토)~10.13(토) 6주
(추석 연휴 쉽니다.)
장소: 교구청 별관, 회비: 10만 원
접수: 대구, 508-10-448845-1, 남희정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소공동체 세미나

일시: 9.4(화) 14:00~18: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학원
주최: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주관: 대구대교구 소공동체위원회
신청: 8.21(화)까지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2대리구 1지역 예로니모성경학교 개강

일시: 9.6(목)부터 매주 목요일
14:00~16:00 / 20:00~21:30

장소: 동촌성당
강사: 효목성당 박영식(아고보)신부
마감: 9.6(목) 14:00 까지
개강미사: 9.6(일) 14:00, 동촌성당

청년 선교단원 모집

대상: 용모 단정한 20~30대
수습교육 후 활동 (봉사료지급)
문의: 한국천주교 가두선교단
계산문화관 3층, 781-6100

대구파티마병원 14차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신규 교육

기간: 9.10(월)~11(화)
장소: 3층 제1강의실
선착순: 30명, 교육비: 2만 원
대구은행, 508-10-349316-9, 장혜자
문의: 940-7059,7415(입금 후 전화)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개강: 9월 초 (기초반 3개월 과정)

시간: 화 19:00~21:00
수 10:00~12:00 중 선택
대상: 성인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채용

성 김대건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 가능한 30~40대 남성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마감: 8.31(금)까지

문의: 742-2504

성기요양원 야간근무 여직원 채용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서류 등

제출: pius8021@nate.com

또는 방문

문의: 안심원, (054)976-8122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2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2012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52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교우남우대학인)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소중한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대연합내과의원
내시경·초음파·호흡기질환 전문
공단검진·각종 종합검진·예방접종
원장: 전문의 이재욱(바오로)
(전 안동병원 내과과장)
☎ 475-3366 Fax. 475-3311
봉곡동 효성터온 효성스프라츠 1층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일 외과의원
원장 · 전문의: 배선익(사도요한)
TEL : 745-6633~4
지하철2호선 범어역 3번 출구, 수성못방향-300m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를 원장 정 순 우 (요섭)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안심원이 함께합니다”
안심원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성기요양원
성기어르신복지센터
임소성기요양원 054)976-8122
문의 성기어르신복지센터 054)976-8123
<http://www.sug.or.kr>